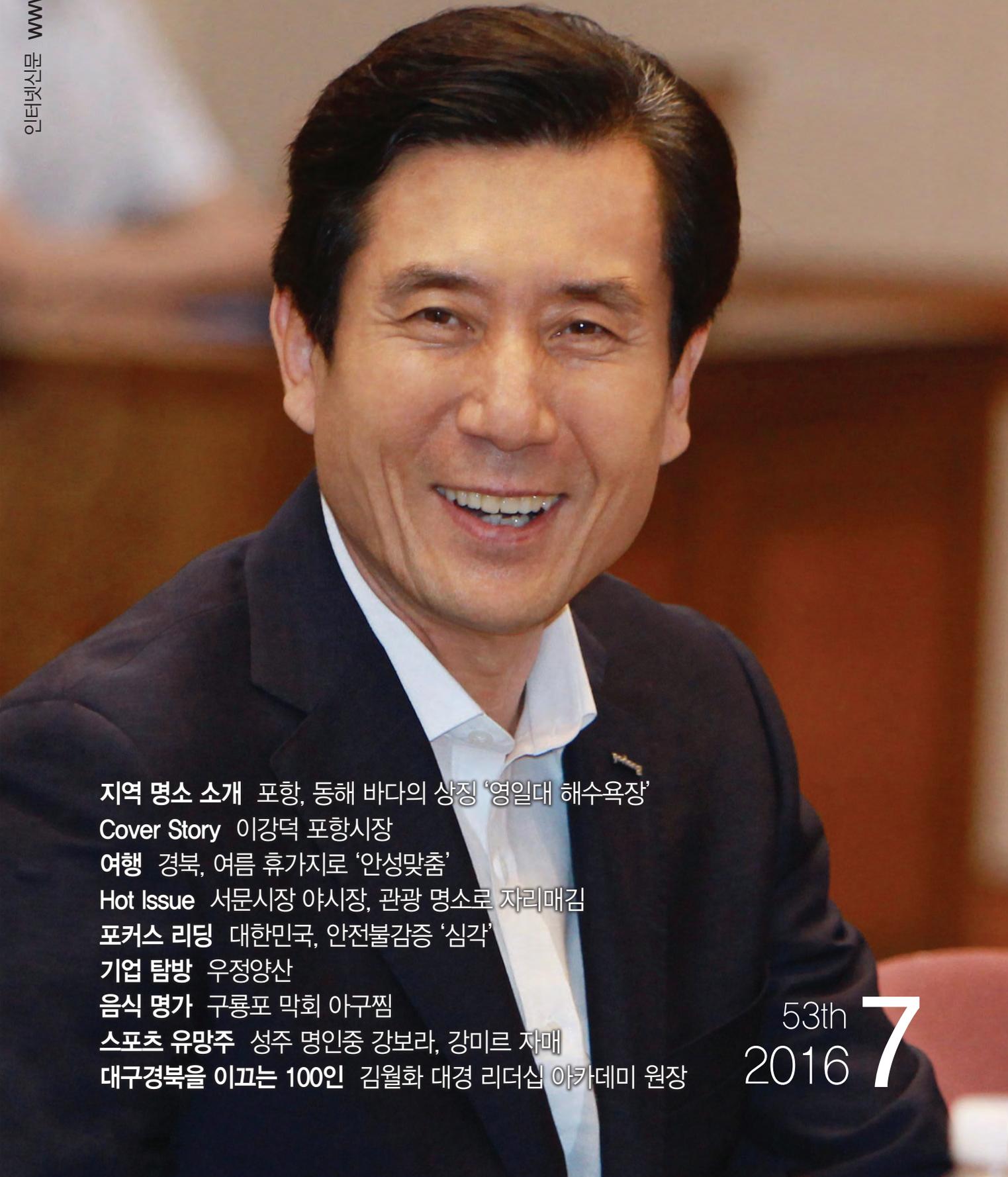


경영저널



지역 명소 소개 포항, 동해 바다의 상징 '영일대 해수욕장'

Cover Story 이강덕 포항시장

여행 경북, 여름 휴가지로 '안성맞춤'

Hot Issue 서문시장 야시장,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포커스 리딩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심각'

기업 탐방 우정양산

음식 명가 구룡포 막회 아구찜

스포츠 유망주 성주 명인중 강보라, 강미르 자매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김월화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

53th
2016 7

할매 · 할배의 **Happy day** 날이 오면...

경상북도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 할배의 날’로 정합니다.

동구 밖에 낫선 차 소리만 들려도
아들 며느리가 싶어 별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데 방해 될까봐
먼 길 피곤할까봐
보고싶다는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없으셨던 어르신들.

그날이 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들이 됩니다.

할매 할배까지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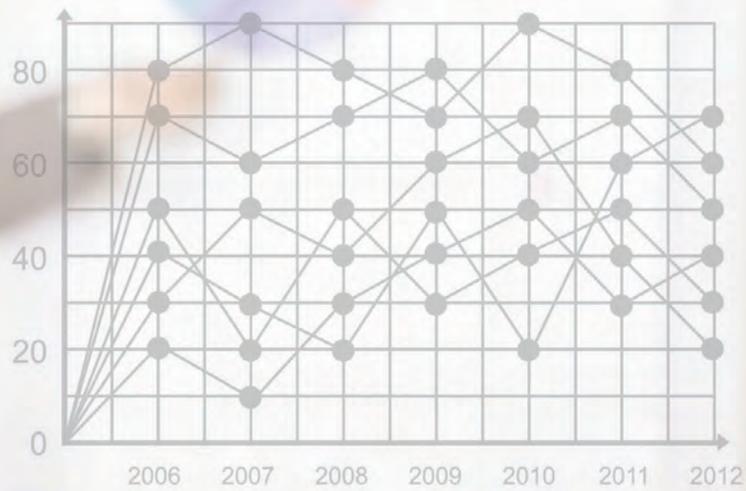




- 06 **지역 명소 소개**
포항, 동해 바다의 상징 '영일대 해수욕장'
- 08 **축제**
도심 속에 펼쳐진 '힐링 꽃동산' 제7회 대구꽃박람회 성료
- 08 **커버스토리**
이강덕 포항시장
"민선 6기 후반기, 구체적 성과 창출 총력"
- 14 **Economy**
대구경북, VR산업 육성 박차
- 16 **여행**
경북, 여름 휴가지로 '안성맞춤'
- 18 **Hot Issue**
서문시장 야시장,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 20 **칭찬합시다**
박창규 달성군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
- 22 **사회**
대구시, 폭염 피해예방 '총력'
- 24 **정책제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지자체, 환경미화원 눈높이 맞춰 해안 보여야
- 26 **정책제안**
포항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28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계약법)
- 31 **포커스 리딩**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심각'
- 32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 100일**
경북 새천년의 기반을 다지다
- 34 **청호(靑湖)칼럼**
- 36 **기업 탐방**
우정양산
- 39 **환경**
경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 40 **음식 명가**
구룡포 막회 아구찜
- 42 **스포츠 유망주**
성주 명인중 강보라, 강미르 자매
- 44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김월화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
- 45 **IT Focus**
부동산 계약도 이제 스마트 시대
- 46 **현장출동**
수도권 연구원, 불법 영업 만연
- 48 **특집**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대경연수원
- 50 **문화가 소식**
- 53 **지역 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3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홍순대
취재	이혁, 도효진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배은정
편집위원	윤정현, 민경량,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주)
발행처	http://www.dgnews.co.kr
본사	경북 경산시 외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북, 라 06418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가 : 8,000원
예금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 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경북·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경북 경산시 외촌면 새터길 30-15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 k_journal@daum.net
전화 : 053) 766-1368~9 FAX : 053) 766-0379

포항, 동해 바다의 상징 ‘영일대 해수욕장’



지난달 7일 경북 최초로 문을 연 영일대 해수욕장은 깨끗한 수질, 1,750m의 백사장, 도심과 가까운 숙박, 편의시설 덕분에 경북 최고의 해수욕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게다가 포항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영일대 누각과 포스코 공단 야경 등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이미 유명세를 탄 여러 맛집들로 여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수질 및 안전 검사, 지역 기업들과의 주변 관광 활성화 협약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들 역시 자발적인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영일대 해수욕장 가꾸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부 해수욕장, 영일대를 만나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길이 1,750m에 폭 40~70m, 면적 406,613.4m²(123,000평)의 백사장을 갖춘 해수욕장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다. 영일대 해수욕장의 원래 이름은 북부 해수욕장이었으나, 국내 최초의 해상 누각인 '영일대'가 자리잡으면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영일대 누각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영일대 해수욕장의 명성도 높아지게 됐고, 매년 열리는 '포항 국제불빛 축제'와 '포항바다국제공예 예술제' 메인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포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주변에 위치한 덕분에 해변가를 따라 여러 맛 집 및 숙박, 편의시설, 주차 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어 관내 타 해수욕장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해 매년 7, 8월 휴가철만 되면 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상권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경북 해수욕장 중 올해 첫 개장

지난달 7일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영일대 해수욕장은 내달 21일까지 76일간 피서객들을 맞이한다. 포항시는 올해 피서객 유치 4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개장 첫 스타트를 끊은 영일대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영일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항목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는 지난 23일 영일대해수욕장 주요 지점에서 채수해 수질상태를 조사 평가한 것으로, 대장균은 극히 미량, 장구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더불어 시는 비치클리너 차량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백사장을 청소하고, 해안 데크에 피서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는 비치파라솔과 족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 작업을 완료했다.

피서객 편의시설 대거 확충

포항시는 피서객들을 위해 영일대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했다. 시는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 50~100여동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알뜰피서객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지역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축제행사와 기상정보 등 피서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시설물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기존에 2시간에 한 번씩 청소하던 것을 1시간 간격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해수욕장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대한적십자사,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름밤 밝혀주는 명품 야경

영일대 해수욕장의 진가는 밤에 나타난다. 물론 낮에도 물놀이로 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서늘한 바닷바람과 함께 영일대 누각과 포스코 공단 야경이 어우러지는 명품 야경으로 피서객들을 유혹한다. 그 화려한 야경의 중심은 영일대다. 영일대 누각 1층은 열린 구조로 돌기둥과 계단만 조성돼 있고, 2층은 나무로 된 정자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 오르면 달빛 아래 비춰지는 영일만 일대와 포스코 공단, 왼편의 두호항 등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온다.

또, 해수욕장 내에는 해상 250m에 최대 높이 120m까지 물을 뿜는 고사분수대



가 설치돼 있다. 이는 바다에 떠 있는 국내 최초의 분수대로, 분수대가 한번 물을 뿜을 때마다 30분간 바닷물이 최대 높이 120m까지 치솟는다. 분수대 주변에는 사방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이 설치돼 밤에는 물줄기가 6가지 색채를 띠며 장관을 이룬다.

허끝으로 느끼는 바다의 향기

영일대 해수욕장을 검색하면 빠지지 않는 연관 검색어가 있다. 바로 '영일대 해수욕장 맛 집'이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이미 마스크에 여러 번 출연한 맛 집들이 즐비해 있다. 시원한 물회를 비롯해 조개구이 등 각종 해산물 관련 음식점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해산물은 바다의 도시 포항답게 인근 바다, 죽도시장 등에서 직송해 온 것들이 대부분이라 허끝으로 바다의 신선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영일대 누각 주변에는 튀김, 분식, 맥주 등을 판매하는 푸드 트럭들이 자리잡고 있어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각종 주전부리들을 즐길 수 있다. 덕분에 피서객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들에게도 마실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영일대 해수욕장 관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올해 피서객 4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 힘을 쏟겠다"면서, "맛과 멋을 두루 갖춘 영일대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 축제

도심 속에 펼쳐진 '힐링 꽃동산' 제7회 대구꽃박람회 성료

제7회 대구꽃박람회가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대구엑스코 실내외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층 전시관부터 야외광장, 5층 하늘정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5000㎡로 개최됐다. 올해 꽃박람회 주제관은 김영주 피베르디코리아 대표의 '도심 속 낙원으로의 소풍'으로, 아름다운 화훼장식과 독특한 오브제를 사용해 관람객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했다. 더불어 라벤다, 드라이플라워부터 도예, 공예,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볼거리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박람회는 소풍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5가지 테마의 소풍 길을 제시했다. 5가지 테마는 각각 '어린 날의 길', '꿈에서 본 길, 화사하게 웃길', '꽃과 생활의 길', '다시 고백하는 길' 등으로, 길을 따라 걸으면 주제관과 각종 조성관을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커플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엑스코 5층 하늘정원의 마지막 소풍 길은 '다시 고백하는 길'이라는 테마로 연인 혹은 배우자들에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대구꽃박람회의 하이라이트였던 대형화훼조형물 경연대회에는 서라벌꽃예술협회를 비롯한 한국꽃꽃이대경협회, 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현대화에협회화원아카데미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필리핀대학교 등 15개의 원예협회 및 플로리스트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신나라 경북'을 주제로 한 경북도 홍보관, 대구꽃박람회와 상생발전 MOU를 체결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조성관, 이대발 농업 명장 전시관, 도시농업관 등이 특별관으로 조성돼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꽃을 활용한 한 음식들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엑스코 광장에는 대구꽃박람회 꽃 탐과 고양시의 상징인 다육이 동산이 조성됐으며, 블로화훼단지가 직접 생산하는 화훼를 판매하는 등 플라워마켓이 마련돼 다양한 품종의 화훼를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중에서도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조명과 스탠드가 인기를 끌었으며, 꽃과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 인형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행사장에는 포토존을 대거 확충해 오색빛깔 꽃들 사이에서 시민들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꽃박람회를 찾은 한 대구 시민은 "꽃박람회가 처음 열릴 때부터 매년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관람객들의 니즈에 맞춰 발전하는 모습이 만족스럽지만, 몇 몇 인기 포토 존에만 사람들이 쏠리고 있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꽃박람회는 어린이부터 청·장년까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람회였다"며, "꽃박람회에 사용되는 꽃 중에 대구에서 생산되는 꽃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구화훼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도호진 기자



| 인터뷰 | 이강덕 포항시장

Profile

1962년 1월 14일 생
포항산서초등, 장기중, 달성고등학교
경찰대학(법학과/1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석사)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중앙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용인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목포해양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포항남부·구미·서울 남대문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서울·부산·경기지방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차관급)
현) 포항시장(2014. 7. 1~)



“민선 6기 후반기, 구체적 성과 창출 총력”

민선 6기 절반이 지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하반기 중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주요 경제도시인 포항시 역시 전반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경제, 축제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적극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해오름 동맹’, ‘형산강 프로젝트’ 등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물론 철강업 위기 타파와 더불어 산업구조 다변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지만 올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본청 조직개편 등 파격적인 정책도 실시하고 있어 하반기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및 53만 시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게서 민선 6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들어봤다.

Q 민선6기 절반이 지났다. 소감이 어떤지?

A 지난 2년간 53만 시민과 함께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의 가능성은 99%의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포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의 반환점을 도는 지금 땀과 노력의 결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포항만이 가진 우수한 R&D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시켜 외부 충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후반 기에도 경북 경제의 중심인 포항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그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7,3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포항시의 든든한 미래를 열어갈 역점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울산에 잇는 고속도로가 6월 말에 완전 개통돼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IT산업 등 주요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항의 물류기반이 될 영일만항 인입철도도 내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첫 지자체 간 모범 상생발전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된 ‘두호마리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과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호미반도권 종합관광개발’ 조성 사업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Q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업이 위기에 빠져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A 철강경기의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대1로 기업을 전담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기업애로지원단을 비롯해 법률과 세무, 관세, 노무와 같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기업애로 상담관으로 위촉해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와 포스텍, 그리고 세계 수준의 첨단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 유치를 통해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오픈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안전로봇 개발 사업을 비롯해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와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조성 등 로봇 관련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속속 추진하면서 영일만 3일반산업 단지를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Q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 포항공항 노선 재취항 등 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데, 향후 활용계획은?

A 지난해 KTX 포항-서울 노선 개통에 이어, 지난 5월 3일부터 서울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재 취항했습니다. 여기에 6월 말에 완전 개통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과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 단선전철 사업, 영일만 인입철도 등이 완공되면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동해권역의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포항공항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항공사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취항을 원하는 소형항공사 등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증설과 관광객 유치 등과 함께 공항의 확장성을 위해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부산·울산을 비롯한 경남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점을 활용해서 산업과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와 그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망 구축을 바탕으로 동해안을 아우르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포항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Q 최근 포항시 축제, 관광, 먹거리 관련 아이템이 눈에 띄게 늘었다. 문화, 관광 산업 육성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A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철(鐵)'과 '빛'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문화와 예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도시로만 알려진 포항은 204km에 이르는 천혜절경의 해안선을 가진 지정학적 강점과 함께 풍성한 바다 먹거리와 문화를 가진 해양 도시입니다.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해 포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포항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문화콘텐츠 발굴에 주력, 융·복합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축제위원회, 시설관리공단 등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문화 사업을 문화재단을 통해 한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평소 상생과 협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지자체와의 연계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포항 도약의 키워드는 '상생'입니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경주시와 손을 잡고 시작한 '형산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두 도시가 공동으로 보유한 친수공간인 형산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인프라와 지역발전 창조모형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시와도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기반으로 상생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한국몽'이라는 주제



로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와는 향후 문화, 경제,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이 함께하는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출범하게 될 포항·울산·경주 간의 '해오름동맹' 등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Q 재정 확충, 자율화는 모든 지자체들의 숙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A 매달 1~2회 정도 중앙부처와 경북도를 방문하며 포항시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계속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간담회와 사업보고회 등을 개최해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13 총선 직후에는 '동해안 5개 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한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열어 인근 지자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협업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는 물론 경북도와 시·도의원, 출향인사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이달부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나?

A 지난 1일부로 민선6기 후반기 시작에 맞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본청은 4국 3담당관 28과에서 4국 1본부 3담당관 24과로, 1본부가 신설되고, 4개 과가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4개 과는 직속기관인 남·북구 보건소에 1개 과가 신설되고, 사업소에 2개 과가 신설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6 후반기 추진방향인 강과 바다를 이용한 해양산업과 산업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창조경제국을 재편합니다. 신성장 산업, 해양관광 산업 등 포항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4급)를 신설해 미래전략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담당관과 기존 창조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노동과 등 경제부문 업무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국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남, 북구 보건소를 기존 보건관리과 1과 체제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2과 체제로 확대해 신종 감염병 발병, 의료관광 산업화 등 변화하는 보건으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국·소장의 과도한 업무량에 숨통이 트이게 함으로써,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국비확보, 본부·국·소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과 책임강화에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A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은 경기에 완주하기 위해 반환점 이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환점까지는 몸을 푼다는 느낌으로 달리고 반환점을 돌고 난 후부터 속도를 높여달려야 좋은 기록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민선6기의 임기가 딱 절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굼직한 현안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지역 현안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 포항의 미래를 보고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행정혁신을 통해 포항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혁 기자



대구경북, VR산업 육성 박차

VR이 ICT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VR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VR이란 특수 제작된 안경과 장갑을 착용하고 인간의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능한 것을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을 뜻한다. 한 마디로 가상 현실 체험이다. 가상의 상황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게임업계를 비롯한 ICT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VR제작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VR 활용에 팔을 걷었다. 시는 'VR제작지원센터' 구축 명목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게임, 공연 등 문화산업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가상훈련 시스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국방 분야 등 고위험, 고비용의 현장훈련 대신 실제와 유사한 가상체험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정보통신 기술과 관광 콘텐츠를 함께 활용해 주요 관광지에 VR체험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김광석 길, 갯바위 등 대구의 대표관광지에 머리 착용형 안경(HMD : Head Mount Display)을, 주요 관문과 다중집합장소

5개소(대구관광안내센터,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 엑스코, 3.1만 세운동길 쌈지공원)에 VR체험장비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에도 각종 해외박람회, 홍보설명회 등에서 VR 관련 산업 육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VR 시장 수요가 많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억여 원을 투입, 'VR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게임 체험 VR 콘텐츠 개발과 영상 VR 콘텐츠 개발 등 VR 초기 시장의 수요를 잡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교육, 기업 육성 등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VR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구의 여러 관광지들을 현장에서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차후 관광뿐만 아니라 ICT산업 육성,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역시 VR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공모한 'HMD용 VR어트랙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선정된 과제는 'VR 플라이 콘텐츠 및 컨트롤러 플랫폼 개발'사업으로, 도는 오는 10월까지 총 사업비 4억6천만 원을 들여 관련 콘텐츠 제작과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VR 장비 개발 및 콘텐츠 시장을 선점해 관련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국, 베트남 등 신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HMD VR체험 보급·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경북, 여름 휴가지로 '안성맞춤'

상주보 물살 가르는 '수상레저센터'

상주시는 지난 5월 14일 도남동 상주보에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센터를 개장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대한레저카누연맹이 위탁 운영하는 수상레저센터는 지난달부터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낙단보에서도 수상레저센터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수상스키와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타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웨이크보드, 폰툰보트,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기구들이 갖춰져 있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천섬과 비봉산, 경천대 등 낙동강의 비경을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관람할 수 있다”며,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열치열' 군위 조선역사 문화테마파크

군위군은 지난달 1일부터 조선역사 문화테마파크 '사라온이야기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를 싹 잊고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사라온 마을은 시원한 물놀이장을 비롯해, 부채와 대나무물총 등 여름용품 직접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달부터는 수박화채, 팥빙수, 멧돌로 만든 콩국수 등 전통적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사또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체험, 포졸 선발을 위한 활쏘기 서바이벌, 조선 민속 보드게임, 물총 쏘기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휴가기간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사라온 마을을 방문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을 전역에서 진행되는 '구미호의 미션 아홉고개'를 완수하면 여름 부채를 기념품으로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사당패의 전통민속 공연과 마술공연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마술체험을 하는 '조선마술사 되어보기' 등도 준비돼 있다.

7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바다, 산, 펜션, 해외 등 다양한 휴가 장소를 고르느라 분주해진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바쁜 일상 속에서 장소, 준비물, 교통편 등 휴가 계획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올 여름 휴가는 가까운 도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거리는 가깝고,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휴가지로 안성맞춤일 터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올 여름 피서객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저렴하게 즐기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경북관광공사는 이번 여름 휴가철 동안 경주 보문관광단지 이용료를 최대 60% 할인한다. 관광공사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호남권 관광객 유치와 지역 휴가객 유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할인은 지난달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 11곳,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안동 유교랜드 등도 함께 참여한다. 할인 쿠폰책은 천안과 금강 등 경북고속도로 휴게소와 순천과 지리산 등 호남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부하고 있다. 보문관광



단지 입주업체, KTX역(동대구·신경주·광주송정역)의 관광안내소, 경북관광 홍보관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관광객은 쿠폰으로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전시·놀이시설과 공연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보문관광단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국악, 밴드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매달 보름날에는 보문호반 달빛걷기 행사도 열린다.

봉화군 숲 속에서 즐기는 '힐링'

봉화군에서는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힐빙스테이(healing+wellbeing) 프로그램인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봉화 목재문화 체험장과 한누리전원생활센터에서 열리는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에서는 산림치유 특강 등 산림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숲을 통해 가족 간 화합과 유대강화를 이루고자 기획된 것으로, 농촌 권역 사업으로 조성된 한누리전원생활센터와 연계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우드음악회, 목공체험, 캠프파이어, 산림욕테라피, 춘양목비누 및 소이캔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 체험 및 산촌숙박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한가한 주말을 보낼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참가희망자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려 신청접수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추가 행사요구가 빗발치는 등 특히 도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효진 기자



서문시장 야시장,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지난달 3일 대구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서문시장 야시장이 개장됐다. 야시장은 저녁 7시에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첫 날부터 10만 명 이상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350m 거리에 늘어선 80개의 판매대는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들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야시장이 대성공을 거둔 덕에 대구시는 이를 발판 삼아 밤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각 구군별로 특화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에, 개장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휴식 공간 부족, 기존 상점과의 상생, 주차 문제 등의 숙제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서문시장 야시장의 화려한 첫 출발

서문시장 야시장(이하 서문 야시장)은 지난달 3일 오후 7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

영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등 주요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개장 선언과 함께 이연복 세프 홍보대사 위촉, 점등식, 매대 순회, 미디어파사드 공연, 가수 김현정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서문 야시장은 개장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공식적인 집계로만 10만 명이 다녀갔으며, 주말까지 포함하면 3일간 최소 80만~100만 명이 다녀갔다. 서문시장 야시장의 성공은 해가 떨어지면 활력이 사라지는 전통시장의 밤풍경을 180도 바꿨다.

서문시장 야시장, '대박'의 비결은

서문시장이 대박을 거둔 가장 큰 비결은 미디어와 SNS로 홍보한



음식들이다. 떡볶이, 납작만두 등 기본적인 메뉴부터 베이컨말이 소시지, 삼겹살 김밥, 마야 핫도그, 라면 핫도그, 허니 탕수육 등 이색적인 먹거리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네 일아트, 핸드메이드 등 각종 문화 상품들로 방문객들의 지갑을 활짝 열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닌 유흥과 여가, 문화가 공존하는 신개념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공 뒤에는 상인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서문 야시장에는 식품분야와 상품분야를 합쳐 80곳의 판매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인 모집 당시 80명 모집에 923명이 신청해 11.5대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서문야시장 고시'라고 불렸다. 이를 통과한 상인들은 한식, 퓨전음식, 다문화음식 등 먹거리와 초상화, 네 일아트, 공예, 핸드메이드 등 동일 품목 타 가게와 차별화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장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고객 니즈에 발맞춘 시장 운영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에 오른 음식들은 모두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채택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영남이공대에서 열린 '요리 품평회 및 시식회'에 시민 품평단을 초청, 70명의 평가를 통해 70여 개의 메뉴를 선정했다. 대구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품평회 덕분에 야시장에서 음식을 맛 본 방문객들은 대부분 만족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는 3개의 공연장(메인무대 2버스킹존)이 자리 잡고 있어 밤마다 퓨전밴드, 마임, 연극, 춤판 등의 문화 공연이 열린다. 또 미디어존을 조성해 주차 빌딩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영상 표출, 시장입구 바닥을 이용한 첨단영상 등으로 쇼핑에 지친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로

서문 야시장이 성공적인 출발을 시작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발전



과 노력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상인들과 시에서는 서문 야시장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 시는 고객들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전주문, 배달, 온라인 결재를 연계하는 택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소액을 구매하는 외국인을 위해 현장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상인들 역시 신메뉴 개발과 함께 상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현재 지정돼 있는 매대 위치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다. 비교적 매출이 높은 시장 중간 자리를 공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상인들 간의 불평,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상인들은 "우선 상인들 사이에서 화합, 협력이 이뤄져야 시장을 찾는 방문객도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차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서문시장 야시장은 개장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개장 때부터 지적됐던 주차 문제, 휴식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탓에 퇴근 시간쯤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물론 주변까지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대란을 뚫고 시장에 도착한다 해도 주차 문제에 시달리게 돼 시장 인근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재방문을 꺼려하고 있다.

휴식 공간 역시 시장을 통틀어 단 한 군데에 파라솔 의자가 20여 개가 설치돼 있는 게 전부이다 보니 구름 인파를 피해 벽에 기대거나 매대 사이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을 먹은 후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길가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 빈 컵, 상자 등도 시장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서문시장 측은 "평균 방문객 수를 파악해 필요한 시설을 적극 보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혁 기자

박창규 달성군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를 웃게 하는 ‘긍정 에너지’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근무 분위기다. 아무리 쉽고 편한 일이라고 해도 근무 분위기가 딱딱하면 직장은 곧 지옥이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화합하면 언제나 웃음꽃이 핀다.

박창규 달성군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은 직원들의 밝은 근무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긍정 에너지’ 그 자체다. 공직 생활 30년차인 박창규 팀장은 오랜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보살핀다.

그는 청소행정과장의 지시부터 막내 직원의 고민까지 모두 웃는 얼굴로 경청한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좌우명에 따라 긍정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박창규 팀장의 격려와 도움 속에 직원들은 긍정 에너지를 되찾는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업무를 대하다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어둡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나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밝은 근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이야기는 회의 시간에 해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 직후나 쉬는 시간에는 업무 이야기를 자제하는 편이다”라며, “대신 친구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 오늘 뉴스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부담 없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근무 분위기가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창규 팀장의 긍정 에너지는 환경 분야 노동조합 달성군 지부와 달성군 간의 소통에서도 빛을 발한다. 환경미화원들이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밝은 인사와 소통으로 화합을 이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환경미화원들 역시 그의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덕분에 환경 분야 노동조합과 달성군 간의 결속력은 대구 8개 구군 중 어느 곳과 비교해도 남부럽지 않다.

가정에서의 박창규 팀장은 아내와 딸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가정이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아내를 위해 청소를 돕는 것은 물론, 부부 동반 모임도 갖고, 대화가 필요한 날이면 둘이서 술 한 잔하며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비록 옛날 경상도 남자라 집안일에 능숙하고 자상하진 않지만 아내에 대한 감사함은 마음에 늘 지니고 있다. 또 늦게 귀가해 혼자 식사하는 딸을 위해 저녁을 두 번 먹기도 한다. 박 팀장은 “배는 부르지만 혼자 식사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시간도 많아져 부녀간에 더 돈독히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팀장은 공직 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긍정적인 사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50대 중반에 다다랐지만 훗날 과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대구시, 폭염 피해예방 '총력'

지난 5월 30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른 무더위였다. 최고기온이 32.3℃까지 올라감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예방에 앞장섰다. 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재난도우미 등에게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전광판 및 마을앰프를 통해 폭염행동요령 등 폭염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시민들이 폭염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앞으로 여름철 동안 이어질 폭염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 '폭염대책 추진기간' 운영

대구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도심온도 저감시설 가동 등 다각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자연재난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전담팀을 구성해 실시간 폭염정보를 공유하고 폭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 2083명이 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구기상지청에서는 지역별 취약성 및 영향을 고려한 폭염 위험수준정보 등을 방재기관(대구, 의성, 경주)에 제공하는 영향예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폭염 쉼터 운영, 열섬현상 완화 최선

시는 경로당, 금융기관 등 '무더위쉼터' 895개소를 운영하며 쉼터 기능유지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구·군별로 5개소 이상을 현장 방문해 냉방기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 폭염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오후 시간대에 간선도로 물 뿌리기와 클린로드 시스템·수경시설 가동 등을 시행하며, 시내 변화가에는 미세 물 분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 4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지난해 여름철 도심 피서지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많았던 물놀이장은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9개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폭염을 즐길 수 있도록 금호강 공항교 주변에 야영장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폭염 노출 위험



이 많은 건설·산업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2~5시)에는 야외 현장작업 자제를 권고했다.

올 여름 기온,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2.8~26.4℃)보다 높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일 확률이 높다. 대구지역의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평균 28일이며, 월별로 나눠 보면 5월 0.5일, 6월 1.6일, 7월 11일, 8월 13.6일, 9월 1.3일이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봤을 때, 이달 중순쯤부터 내달까지가 폭염 최고 위험기간이다. 폭염주의보 발령 조건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약 일주일가량을 제외하고는 폭염주의보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 기준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10.2일인데 비해 대구시는 2배 이상 많은 21일인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면밀한 폭염 피해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폭염 관련 질환 시 응급조치 필수

대구시는 폭염대책 추진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폭염 관련 질환 시 응급조치법을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폭염 관련 질환으로는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이 있다. 각 질환별 증상을 살펴보면, 열경련은 근육 경련과 피로감,

열부종은 발이나 발목이 붓는 증상, 열부종은 일시적인 의식소실, 열탈진은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등이고, 열사병은 피부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두통, 의식 저하 등이다.

시에서는 이 같은 질환 증상이 보일 시 환자를 시원하거나 그늘진 곳으로 옮겨 발을 높인 자세로 이온음료를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열사병의 경우 그늘로 옮긴 후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신속히 119를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정보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을 확인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지자체, 환경미화원 눈높이 맞춰 해안 보여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31일까지 해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수령 받는 절차를 거쳐 6월 7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2017년 시행되는 차량 밀폐화에 따른 대수리·수선비를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는 것, 두 번째, 복리후생비 현실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15)됨으로써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를 조정한 것 등이다.



>>노무비 기본급 현실화

노무비의 경우 기존 규정은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08)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8년 이후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발표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직접노무비 산정 시 기존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병행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 노임단가는 2016년 상반기 기준 일일 94,338원

으로 발표되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는 2016년 기준 65,674원으로, 약 30%가량 적은 금액으로도 원가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확정 규정에서는 기존과 같이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확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추가하여 근무자들의 퇴직 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1년 미만근무자 및 기타 변수에 의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도록 확정되었다.

간접노무비는 기존에는 작업반장과 차량정비공의 노무비를 일컬었으나 이번 개정에는 현장감독자, 폐기물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폐기물상차원,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 등의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은 직접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간접노무비율 산정방법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노무비율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간접노무비 상승효과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포함된 직종의 원가계산 적용여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밀폐화 대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포함

경비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2017년 시행예정인 차량밀폐화에 따른 일부 감가상각비가 추가되었다. 추가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는 감가상각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후 설치된 장치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복리후생비 현실화

복리후생비는 작업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먼저 피복비는 작업용 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지급하는 것을 장갑 월 15회 이상, 마스크 및 수건을 월 2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실제 소요되는 피복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급식비는 기존 1일 1식 단가 5,000원으로 적용되어 있던 것을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단가 6,000원으로 적용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작업자를 고려하여 간식 1식을 추가하여 1회당 3,000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간식부분은 제외되고 대신 식대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경비의 기타항목으로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파상풍 및 독감 등 특수건강예방접종비, 교통비, 여비, 자녀학자금지원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중 공상치료비, 교통비, 여비, 자녀학자금지원비의 항목 등 적용기준이 모호한



항목은 삭제되어 확정되었고, 현재 지급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규정 변경에 의한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였다.

세금과 공과비목으로는 사업소세를 원가구성항목으로 신규 추가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반관리비 비목으로의 적용여부의 논란으로 삭제되어 확정되었다.

>>일반관리비 조정,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역점

일반관리비는 지난 2016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기존 '용역' 비목의 5%를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비목을 신설하고 10%로 규정해 금번 개정에 적용됐다. 금번 개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임금 기준 논의 당시 많은 논란이 제기돼 가장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고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및 대행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개정안 발맞춰 헤안 보여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2013년 이후 약 3년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노동여건과 근무 간 다수의 위험요소 및 기피직종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실제 복리후생이 다소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근로자의 복지부분을 간과한 측면의 규정을 개선하고 일반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명한 판단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근무자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지현 수석연구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품, 메카트로닉스 등 산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건우 대경경제청장은 “포항지역 및 국·내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지구 지정 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계기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명품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 342.37km²(95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17%를 넘는 개발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2004~2014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누계금액은 51억 5,230만불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외투금액의 5.3%에 불과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사업비 투자금액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수된 비율은 14.4% 수준이다.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은 지역 안배적 차원에서의 과잉·중복, 경제특구 지정과 개발 및 입주율 저조로 인한 경제특구의 효율 저하, 경제특구 간 특성 및 차별화 미흡,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차별화, 특성화 전략을 집중 모색하고 투자환경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유치업종 위주로의 통합·연계 운영,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포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5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체감도에서 규제합리성과 공무원 태도 등 평

가 항목 6개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포항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 된 이유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지원도 한 몫 했다. 시는 부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담당 관실을 만들어 직원 스스로 부서에 지원하도록 해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투자기업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기업들의 규모축소와 철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각종 규제와 노동환경, 고임금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신규채용 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놓고, 실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이나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대규모 실업사태 및 관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더 완화하고 세제나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부문에 있어서 외국기업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많은 혜택을 받고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술전수 등 현지기여를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중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은주 선임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의 흐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경우 계약 절차와 기준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은 국가계약법과 거의 동일하다.

참고로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계약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이들 예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여개로 산재되어 있던 기존 예규를 모두 폐지하고 7개 예규로 통폐합해 신규 제정하였다. 7개 예규는 지난 2008년 7월 7일자로 시행되었고, 2012년 3월 22일 이후 7개의 예규가 2개 예규로 통폐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16년 현재 지방계약법령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1.20. 시행)'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20. 시행)'이 있다.

>>지방계약법의 목적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의 원칙(법 제6조)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방법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持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원칙은 공개경쟁에 의한 일반입찰방식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방법이나 내용, 시기 등은 대통령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고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통상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2B프로그램인 나라장터를 말한다. 입찰공고의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입찰, 계약 관련 세부 규정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입의 원인이나 지출의 원인이나에 의해 달라진다. 우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가격기준으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다.

만약 입찰에 참여한 자가 단독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찰이 되고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지방계약법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홍순대 편집장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심각'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사고 등도 '안전 규정 미준수'가 주원인이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3년 1월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협력사에 점검 시 2인1조로 출동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보여주기 식 지시였을 뿐 인력, 비용 문제 등을 핑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지난해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구의역 사고 등 또 다른 인재(人災)를 낳았다. 이번 구의역 사고의 경우, 부산시처럼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밤 시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규정했다면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규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실제 작업현장, 회사 입장과 동떨어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불감증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은 0.50%인데 반해 건설업은 0.75%를 기록했다. 건설현장에선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2015년 493명 등 매년 건설현장에서 5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규정 준수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500여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등한시 하는 건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가벼운 처벌수위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언제든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북도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달 경북 고령군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원료 배합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탱크 안에는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이에 대한 매뉴얼이나 보호 장구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밀폐된 탱크를 청소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환기나 호흡용 보호 장비도 없었다. 놀라운 건 공장 내 다른 근로자들 역시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우리 주변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안전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다음 희생자는 작업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될 수도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하루 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혁 기자



■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 100일

경상북도가 지난달 신청사 개청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한 경북도청은 이제 경북 새천년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 청사가 이전되면서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경북 북부지역은 이제 경북 내 기관, 기업들이 주목하는 '노른자'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에 경북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등의 중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 새천년의 기반을 다지다

경북도, '신도청 100일 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신청사 개청 100일을 맞아 그 동안의 변화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도청 100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최재혁 경북전남대학교 총장, 엄용균 안동대학교 교수,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본부장을 비롯한 11명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기조발제에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 새천년의 기반 마련,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가능성 확인, ▲역사와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한 신청사를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로 꼽았다.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토지를 분양을 하는 등 신도시 1단계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했다. 신도시 내 아파트는 1,898세대가 건립돼 1,039가구가 입주했으며, 현재도 아파트건설이 활발하고, 교육시설도 차질 없이 단계별로 갖춰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청사, 경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경북도 신청사에는 금년 6개월 동안에만 37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멋과 경북의 얼을 담은 신청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된 덕분에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휴가철을



비롯한 하반기에도 신청사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까지 신청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이 신청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는 7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사운영기획팀(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신도시 주변에 27.1km 길이의 둘레길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예천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잇는 등 관광자원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탄력

청사 이전 이후 경북도에서 강조해왔던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신청사 개청식 때 박 대통령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을 직접 언급하면서 힘을 실어준 덕분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구체화 방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광역협력의 틀인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경북을 비롯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전북이 참여한다.

더불어 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은 '광역 교통접근 체계 확충'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주~영천 고속도로', '포항~안동 국도확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공기 단축과 서부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新경북 시대, 앞으로의 과제는

도는 신청사 개청 100일을 맞아 중점 과제로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 2단계 개발, ▲신도시 접근 광역 교통망 조기 확충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가속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 이전·유치, 산업시설 확충, 유관기관 유치 전담 T/F팀 운영과 기관별 책임제 실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안동바이오 2일반산단'을 확대하고, 신도시 2단계 개발 시에 부지 내의 공업지역에 '도시형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대선 공약화하는 단계별 전략도 검토 중이며,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수립, 추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청사 개청 100일을 맞아 토론회 등을 통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북도의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국가정책과 연결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 이전이 경북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접근 체계 개선,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효진 기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사회

최근 우리 사회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갑질과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조선시대부터가 아니다. 필자는 정확히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족 가치관의 근간은 유불선과 선비사상 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 사상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가치는 혼돈에 빠졌고, 노블레스 오블리제도 사라졌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자본주의의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발전해 왔다.

또한, 정부와 기업 등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면서 가치관 혼란과 함께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도 망각하게 됐다.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근본적 가치관은 무시되고, 권력형 부패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전 세계 꼴지 수준이다. 경제형태는 대기업 중심체제로 된 지배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가족기업 혹은 1인 독재체제 등을 내세운 문어발식 경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현상임과 동시에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바로 무너져버리는 불안정한 미래성과 같다. 이런 현황의 모든 씨앗은 정부와 정치에서부터 출발한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바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보스 정치에다가 부도덕한 인물들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불편한 사실과 진실이 얼마나 많은가 둘러보라.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교통문제와 은행과 카드회사의 신용의 문제 등에서 법제도적인 일제잔재 검사제도, 사법부의 역사청산,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 등 수많은 문제점까지 도처에 퍼져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정부는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야 하고, 정치는 거대한 역사적 사명이라는 구조물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백년, 천년 동안 안전하고 튼튼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발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이후 가장 훌륭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열과 갈등 등으로 그 구조물은 많이 미흡한 상태다.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와 정치가들이 앞장서야 한다.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직접 치유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정치에서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혼돈의 사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지 뼈저리게 통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정치가와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 전 세계의 역사상 유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문맹률과 국민의 열정에서 리더의 부재는 통탄할 따름이다.

따라서 본보의 청호칼럼에서는 향후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재하고자 한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상상력! 소통! 협력!

미래의 리더는 누구인가?
대경인재개발원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경인재개발원 리더십캠프 Leadership Camp

- 대상 : 큰 꿈을 안고 미래를 이끌
초등/청소년/대학생
- 교육내용 : 리더십교육
- 일시 : 7~8월 방학기간 [초등(1박2일),
청소년(2박3일), 대학생(3박4일)]
- 장소 : 대경연수원
- 문의 : 053-766-1368



우정양산 “우산 산업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우정양산은 지난 2007년 대구 달서구에 설립된 우산, 양산 전문 회사다. 대구광역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참여 업체이기도 한 우정양산은 이미 KTX역 내에 마련된 ‘중소기업 명품마루’를 포함해 지자체, 전국체전 등 국내 곳곳에 납품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회사다. 100% 국내산 원단을 사용하고, 생산시설 완비로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우정양산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정훈 대표는 우산 폭 재단 공정 최신헌화, 우산 산업 인재 육성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우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양산 제품은 일반 우산과 확실히 다르다”

우정양산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우정양산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저가 OEM 우산, 양산과는 달리 100% 국내산 원단을 활용해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할 수 있어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우산이라고 하면 ‘비가 올 때 잠시 쓰고 잊어버리는 소비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우정양산의 생각은 다르다. 우정양산에게 우산이란 하나의 패션 이자 작품이다.

우정양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정훈(31) 대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 부친이 우정양산의 전신인 (주)TS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약 40여 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이 대표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 이 대표는 아버지의 조언과 자신의 젊은 감각, 경영 전략을 통해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우정양산 주요 납품 실적

- 대구시청
- 대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대구 안전관리공단
- 경상북도 신도청
- 2012년도 전국체전
- 지역 내 지자체 및 중, 고교

우정양산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는 디자인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제품을 알리려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다. 우정양산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민화 우산'부터 지역 대학 디자인과 교수, 학생들이 디자인한 우산까지 다양한 색의 우산을 판매하고 있고, 새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디자인과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우정 양산 제품을 제출할 정도다. 여기에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까지 해주고 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산의 종류도 다양하다. 편의성, 실용성 등의 특색에 알맞은 우산들도 제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3단 우산보다 작고 간편한 '슬림 우산', 등산 시 지팡이로도 쓸 수 있는 '지팡이 우산' 등이 있다. 이 대표는 "우산을 고객들에게 알리려면 그들의 니즈에 맞게 실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정 양산은 디자인, 실용성, 내구성 삼박자를 두루 갖춘 덕에 이미 국내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은 바 있다. 납품한 곳만 해도 KTX 동대구역을 비롯한 서울, 광주, 수원, 대전역 '중소기업 명품 마루' 매장, 대구시청,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 안전관리공단, 경북도청, 전국체전, 지역 중고교 등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다.

이미 국내에서 제품을 인정받은 우정 양산의 다음 목표는 해외 진출이다. 특히, 중국 판로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산층 대상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기술 혁신과 우산 산업 관련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정부와의 MOU 협약을 통해 우산 폭 재단 공정 최신허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우산 제조 시 수작업으로 했던 일을 레이저로 대신하는 작업으로 비용 절감, 제품 질 향상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산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고객들이 재료를 구입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립식 우산 제작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우산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직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술직들은 대부분 5~60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를 이어 받아 우산 산업을 키워갈 인재들을 만드는 게 이 대표의 목표다.

이정훈 대표는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체돼 있는, 잊혀져 가는 우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혁 기자

경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공급 대기오염측정망 보급 확대 주의보 발령 시 신속 전파

경북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기준,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 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 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미세먼지 예, 경보체계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 도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철저히 해 경보, 주의보 발령 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에 SMS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도민에게 전광판,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신속한 홍보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천연가스버스 31대, 전기자동차 110대를 보급하며, 오는 2020년까지 현재 보급된 친



환경차량 20%이상(581~700대)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난월부터 이달까지 비산먼지 다량 배출 및 상습 위반업소 위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강력히 행, 사법 처분을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확대, 운영을 위해 도내 인구 10만 이상 측정망 미설치 시군(상주, 칠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 측정망을 설치, 운영(현재 14개소 → 16개소)한다.

도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특별대책 추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차후 이어질 수 있는 피해 예방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전국에 퍼져 있는 가운데, 도민들 역시 되도록 야외활동을 꺼려하고 있다”며, “인체 유해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감시 및 상시 측정체계를 유지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호진 기자

■ 음식 평가

본보는 음식 평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평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 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수성구 청수로 69번지에 위치한 '구룡포 막회 아구찜'이 영예를 안았다.



숙성 회 한 접시면 여름 더위 '거뜰' 구룡포 막회 아구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살얼음 동동 띄운 냉(冷)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물회는 지역, 연령대 상관없이 사랑받는 메뉴다. 때문에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합성어, 대구의 무더위를 비유한 신조어)에서 물회의 인기는 단연 독보적이다. 그 중에서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구룡포 막회 아구찜'은 입안을 썰렁하게 만드는 물회와 감칠맛을 자랑하는 숙회, 달아난 입맛을 붙잡아오는 아구찜 등 다양한 메뉴로 대구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직영점'

구룡포 막회 아구찜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점이지만 수성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대구에서는 유일하다. 따라서 재료의 상태나 위생, 청결 상태는 늘 최상을 유지한다. 올해 초 문을 연 대구직영점은 오픈 7개월 만에 수성구청 선정 청결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룡포 막회 아구찜 대구직영점을 운영 중인 윤 덕영 대표 역시 본사에서 경력을 쌓았을 뿐 아니라 요식업계에 22년째 몸담고 있는 베테랑이다. 각종 요식업 노하우로 다져진 그는 대구 시민들의 입맛에 맞춰 구룡포 막회 최초로 아구찜을 시도했다. 타 체인점은 '구룡포 막회'이지만 대구직영점만 '구룡포 막회 아구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구룡포 막회 아구찜은 차별화된 메뉴, 최상의 재료, 철저한 위생 관리 덕에 주말에는 재료가 먼저 떨어질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숙성 막회부터 아구찜까지 모두 '일미'

구룡포 막회 아구찜은 활회회를 사용하는 대구 음식점들과 달리 자연산 숙성 회를 사용한다. 숙성회를 사용하면 회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 때문. 또 여름철 민감할 수 있는 위생 문제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맛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대표 메뉴인 막회와 물회 모두 숙성 회를 사용한다.

물회는 시원한 육수와 함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양념으로 더위에 지친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막회는 매일 최상의 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종이 매번 달라진다. 싱싱한 숙성 회를 야채와 함께 미역과 김에 싸서 한 입에 쏙 넣으면 입 안에서 화려한 폭죽이 터진다.

대구직영점의 별미인 아구찜 역시 콩나물과 아구를 따로 조리한 후 참기름과 함께 푸짐하게 볶아준다. 또한,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아구찜에 이벤트로 통오징어까지 얹어주고 있어 2~3인



분 양을 시켜도 3~4명이 거뜬히 먹을 수 있다. 덕분에 아구찜은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물회와 함께 최고 인기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돌문어, 새우장, 골뱅이무침, 복지리탕, 매운탕, 멧게비빔밥, 철판쭈꾸미 등 다양한 메뉴를 마련해 고객들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

구룡포 막회 아구찜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이다. 구룡포 막회 대(大)자 사이즈가 4만원을 넘지 않는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고객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이윤을 덜 남기는 대신 만족도를 올리는 게 윤 덕영 대표의 경영 원칙이다.

이 같은 배려는 고객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밝은 미소와 인사로 고객들을 맞이하는 구룡포 막회 아구찜은 아기 전용 의자를 마련하고, 인근 가게와 협의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까다로운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구룡포 막회 아구찜은 늘 호평을 받고 있다.

윤덕영 대표는 "서비스란 의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섬기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최고의 음식,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성주 명인중 강보라, 강미르 자매 “성주군 이름 걸고 올림픽 금메달 딸래요”



성주 명인중학교에 재학 중인 강보라, 강미르 자매는 지난 5월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북도에 금메달 2개를 안겨준 메달 사냥의 주역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강보라 양과 중학교 1학년인 강미르 양은 왠만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또래답지 않은 각듯한 예의범절과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은 자매의 외모와 나이를 잠시 잊게 만들었다.

언니인 강보라 양과 동생 강미르 양은 6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 덕분에 자매의 기량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다.

강보라 양은 2015년 제8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 46kg급 금메달과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여중부 48kg급 금메달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강미르 양 역시 2015년 제1회 아시아카뎀(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 은메달, 제44회 전국소년체전 여초부 38kg급 금메달,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40kg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자매가 이토록 제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건 강호동 코치의 강인한 훈련 덕분이었다. 성주 명인중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전임코

치로 활동 중인 강 코치는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치면 남의 자식도 못 가르친다’는 신념 아래 자매를 더 냉정하게, 강인하게 훈련시켰다. 이에 대해 강 코치는 “제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코치라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든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매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냉철하고 전략적인 가르침 덕분에 지금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자매는 다른 코치들보다 자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맞춤형 지도를 해준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매는 힘든 훈련과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언니, 동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자매에게 서로는 격려해주는 동반자이자 나태해지지 않도록 채찍질해주는 라이벌이다. “만약 두 선수가 성인이 돼서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은지?”라는 질문에 자매는 양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웃었다.

한편, 이처럼 어른스럽고 겸손한 자매도 훈련 외 시간에는 웹툰과 군것질을 좋아하는 귀여운 여중생이다. 자매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샐러드와 요거트로 끼니를 대신하면서도 삼겹살, 케익, 막창 등 먹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얼마 전까지 ‘태양의 후예’ 송중기를 좋아했었다고 밝힌 자매는 웹툰과 ‘먹방’ 예능 프로그램 역시 즐겨본다고 밝혔다.

강보라 양과 강미르 양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다. 실력과 목표, 인성까지 갖춘 인재로 전국에서 탐내는 건 당연하다. 이미 국내 여러 학교에서는 자매에게 스카웃 제의를 보내왔다. 하지만 자매는 전국에서 오는 스카웃 제안을 마다한 채 성주군의 인재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자매는 “성주군의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결과, 이번 달에는 김월화 대경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이 선정됐다.

김월화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중 가장 첫 번째로 선정된 김월화 대경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은 그 누구보다 지역 리더 양성에 앞장서왔다.

KBS기자 출신으로 대구시민들에게도 친숙한 김월화 원장은 평생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2년 대경리더십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는 대경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21세기 리더를 꿈꾸는 지도자들에게 전반적인 리더십을 습득하게 해주고 동시에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함양시키고자 힘써왔다.

대경리더십아카데미는 대구경북의 각계 지도자 1100여 명을 교육시켜 배출한 대표적인 지도자교육 과정이다.

그동안 배출된 지역 인재들만 해도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손동부 협성섬유 대표이사, 류만현 경북플라스틱 대표이사 등 대구지역 정관계와 기업계 대표 인사들로 가득하다. 김월화 원장은 이러한 지역 대표 인사들이 사교를 통해 서로의 의견,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이끌어 가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월화 원장은 대구경북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의 리더는 단

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화술, 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협력 등 다양한 면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는데 이를 다 충족하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늘 실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김 원장은 리더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항상 가다듬고 정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광범위한 인맥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런 자세를 늘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월화 원장은 리더의 또 다른 덕목으로 소통과 협력을 꼽았다. 그는 어느 조직에서든 우두머리만 뛰어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다른 사람들, 혹은 직원들을 이끌어 가면서도 늘 그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조직은 인간의 몸과 같아서,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제 역량을 다 펼칠 수 없는 것처럼, 조직에서도 리더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끈다 한들 직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김월화 원장은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기 전에 늘 수신제가(修身齊家)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선정될 대구경북을 이끄는 리더들 역시 이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혁 기자



부동산 계약도 이제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지난달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시됐다.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인근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은 구축을 마치고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첫 부동산 전자계약이 맺어졌다. 하지만 첫 전자계약 이후 전자계약 확산은 더뎠다.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에 필요한 태블릿PC를 가진 사람이 적다는 점이 꼽혔다. 스마트폰은 거의 대중화된 것에 비해 태블릿PC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소수라는 것.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러 방면의 보완책을 생각한 끝에 지난 5월 부동산 전자계약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출시했다.

국토부가 전자계약 앱을 개발하면서까지 전자계약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돼 중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자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도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편의성도 대폭 증대된다. 앱을 이용할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거래를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우대해주는 등 전자계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앱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희진 기자





■ 현장출동

수도권 연구원, 불법 영업 만연



**지방에 지부 설립, 지자체와 계약 체결
계약예규 위반, 자질 논란 등 이어져
지역 업체들 “일벌백계해야” 한 목소리
도내 지자체, 각별한 주의와 대책 필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연구원들이 지방에 지부를 설립해 이를 내세워 원가계산 등 불법 영업을 펼치고 있어 계약 자격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구원은 기업이 아닌 정도를 지켜야 하는 국가, 사회 공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뒤로한 채 지부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격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서울 소재 A연구원의 경우 현재 대구시, 부산시, 제주시, 광주시, 전주시, 대전시 등에 지원을 세워 원가계산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B연구원 역시 대구/경북,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지역에 본부 및 출장소를 설립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 용역

기관의 조건에서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B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본부, 출장소가 월간 물가 시세 가격조사 및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만 실시하고 있다고 표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점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또한, 연구원 지역 지부의 자질 부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경우,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지부에서는 기본적인 계약예규도 준수하지 않은 채 소수의 인원만 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고서 및 서비스 수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런 ‘꼼수’ 영업 때문에 정도를 지키고 있는 지역 연구기관들만 희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 지역 연구기관들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빨리 조사해 일벌백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연구원들의 불법 영업을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편의성 등 측면만 앞세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모두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는커녕 자격조차 확인되지 않는 연구원 지부와 계약을 체결해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과 관련한 비리는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원들의 불법 영업과 지역 업체들의 비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합당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편집국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대경연수원



대경연수원은 대경인재개발원 부설기관으로,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대구 경북 대표 인재 양성기관이다.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지역 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대경연수원은 공무원부터 학생까지 연령, 지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원 내에는 숙박, 식사, 강의, 체육활동, 여가시설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마련돼 있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생활까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또한,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갯바위, 대경수상레저타운, 경마공원 등 주변 관광 명소와도 가까워 지리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미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기업들이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어 워크숍 관련 노하우를 두루 갖춘 대경연수원은 학생 리더십 캠프, 지방자치단체 학술세미나, 공청회 등 인재 양성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에 위치한 대경연수원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팔공산 자락 청정 자연과 어우러진 최신 시설은 휴양시설을 연상케 한다. 교육에 필요한 공간 외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했기 때문에 시냇물 소리와 풀냄새, 맑은 공기까지 산 속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답답한 도심심을 벗어나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워크숍이 있을 경우 가족과 함께 와서 업무 외 시간에 연수원 휴식시설에서 쉬었다 가기도 한다. 식사 후 연수원 울타리를 따라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 역시 대경연수원만의 매력이다. 눈을 감고 새소리를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걷다보면 어느새 스트레스와 시름은 말끔히 사라진다.

교육, 편의시설이 완비된 '팔방미인'

연수원에 들어오고 나면 외부에 나갈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시설이 연수원 내에 갖춰져 있기 때문. 지하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연수원 내부에는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각종 체육, 편의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주차 역시 연수원 앞마당과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이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

객실은 신(信), 인(仁), 의(義), 예(禮), 지(智), 가온(MP특실)로 이뤄져 있으며, 최대 100여명까지 숙박할 수 있다. 회의장은 대교육장과 분임회의실로 나뉘져 최대 130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다도(茶道), 힐링, 소통 등 각 분위기에 맞게 마련돼 있어 취향대로 쉴 수 있다. 특히 옥상에 마련된 하늘정원은 주변 경관과 함께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축구장, 노래방, 자판기, 야외 그릴 등 각종 오락,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어 워크숍 이후 뒤풀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지자체, 지역 기업들에 인기

대경연수원을 찾는 주 고객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혹은 지역 기업들이다. 경영,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등 각 분야별로 마련된 강사진과 교육프로그램들이 잘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실도 회의 성격, 목적별로 마련돼 있기 때문. 교육 프로그램은 ▲리더십 ▲역량개발 ▲경영전략 ▲성공마케팅, 감성마케팅 ▲이미지 메이킹 등이며 테마별로 원하는 강사진이 있을 시 연수원 측에서 섭외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강사진 역시 교수, 연구원장, 변호사, 레크레이션 강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를 더한다. 덕분에 지금까지 대구시,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주)희일커뮤니케이션즈 등이 다녀갔으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역 단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가 인재 양성에 '역점'

대경연수원은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리더십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7~8월 간 리더십 캠프를 진행한다. 초등학교는 1박 2일, 청소년은 2박 3일, 대학생은 3박 4일로 진행되며, 성공하는 청년 7가지 습관, 글로벌 리더스쿨, 자녀성공 학부모교실, 취업 100% 자신감 충전 프로그램 등 연령별 세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직장인 및 공무원 역시 직무 특화 평생교육, 새마을 지도자 교육, 공무원 역량강화, 조직 관리 등 기존 교육보다 전문화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경연수원 측은 "소통, 변화, 혁신을 통한 국가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사진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대구 경북 대표 인재 양성기관이라는 명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문화공연의 도시 대구에서는 이번 달에도 많은 공연, 전시가 열린다. 장르도 국악부터 도예전, 뮤지컬, 연주회 등 다양하게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 공연, 전시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이번 달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마련했다.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리랑

일 시 7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문의전화 053)230-3311

14일 아양아트센터에서는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리랑 공연이 열린다.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한 재능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됐으며, 공연을 통해 북한 예술의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북한중앙공연예술단의 무용은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보다 다소 빠르면서 박력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번 공연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창작 작품들이 준비돼 있다.

또한, 독창, 중창, 무용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휘파람'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익히 알려진 곡들도 새롭게 감상해볼 수 있다. 특히 밀양아리랑의 장단에 맞춰 처녀, 총각의 사랑을 형상화한 '쌍무'와 오랜 역사를 이어 내려오는 전통무용을 칼춤으로 표현해 낸 '평양검무', 세계명곡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코디언 메들리 등은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대되는 볼거리로 손꼽히고 있다.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등의 서양 예술에 익숙해져 색다른 공연을 찾는 시민들이라면 이번 평양예술단 공연을 통해 남북한 전통예술의 매력에 빠져보는 걸 추천한다.

원로작가 회고전- 김익수, 신지식, 서규원

일 시 6월 29일(수) ~ 7월 17일(일)

장 소 대구문화예술회관 1-3실

문의전화 053)606-6152

지난달 29일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원로작가 회고전'은 김익수, 신지식, 서규원 작가의 작품을 통해 미술의 신비한 매력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조소, 응용미술, 사진 작품 등을 전시해 감상하는 재미와 함께 작가의 작품세계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익수 선생은 1980년대 초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억압된 형상으로 표현해 작품에 담았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명 시리즈' 등 희망과 기원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주제를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여인좌상'과 '여명' 등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신지식 선생은 1970년대 말부터 콜라그래프를 시작해 1980년대 초에는 동판화 기법을 시도했다. 그의 판화는 기하학적인 조직성과 구성미가 돋보인다. 신지식 선생은 이번 전시에서 '무제', 'Two Faces and Two Mind' 등의 판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규원 선생은 '고향'과 '삶'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들로 대상의 그리움이나 아름다움을 탐색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초 지리산의 원시자연을 담아 호평 받은 바 있는 '이른 아침' 등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뮤지컬 투란도트

일 시 7월 7일(목) ~ 7월 10일(일)

장 소 계명아트센터

문의전화 1599-1980

동명의 유명 오페라를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본 공연은 지난 2011년 초연 이후 서울을 비롯해 상해, 동관 등 중국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에 8월 하얼빈 초청공연을 앞두고 10주년 DIFF 무대에서 다시 선보인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뮤지컬 투란도트는 지난 공연에 비해 라이브 연주, 볼거리를 확충하고 웅장한 군무까지 견비했다. 더불어 투란도트 역에 박소연, 리사, 칼라프 역에 이견명, 류 역에 장은주, 이정화 씨가 캐스팅돼 명품 출연진까지 갖춰지면서 전 공연의 관람 성적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작품 줄거리는 수중 왕국 '오카케오마레'의 공주 투란도트가 청혼의 조건으로 수수께끼를 내 걸자 페르시아의 칼리프 왕자가 도전해 공주의 사랑을 쟁취한다는 내용으로, 공연에서는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애절한 감정을 노래와 군무로 표현해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듀오비비드, 건반 위의 산책

일 시 7월 13일(수) 저녁 7시 30분

장 소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

문의전화 053)250-1400

듀오비비드는 이탈리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그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인 치하루 아이자와로 구성된 부부 듀오이다. 듀오 비비드는 지난 2004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이후 밀라노, 로마, 구비오 등에서 꾸준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도 듀오비비드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작, 편곡과 부부 듀오만이 선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감을 예술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듀오 비비드는 지난해 밀라노 엑스포 기념 'Musica delle Nazioni'에서 한국과 일본을 위한 리사이틀 연주를 마렸고,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에서는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을 원피아노 포핸즈 버전으로 편곡해 오케스트라의 협연과 함께 멋지게 연주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뷔시, 모차르트, 생상스, 포레, 루제드 릴 라벨 등의 유명 작곡가 곡들을 연주해 음악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는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특별기획 공연인 만큼 풍부하고 세련된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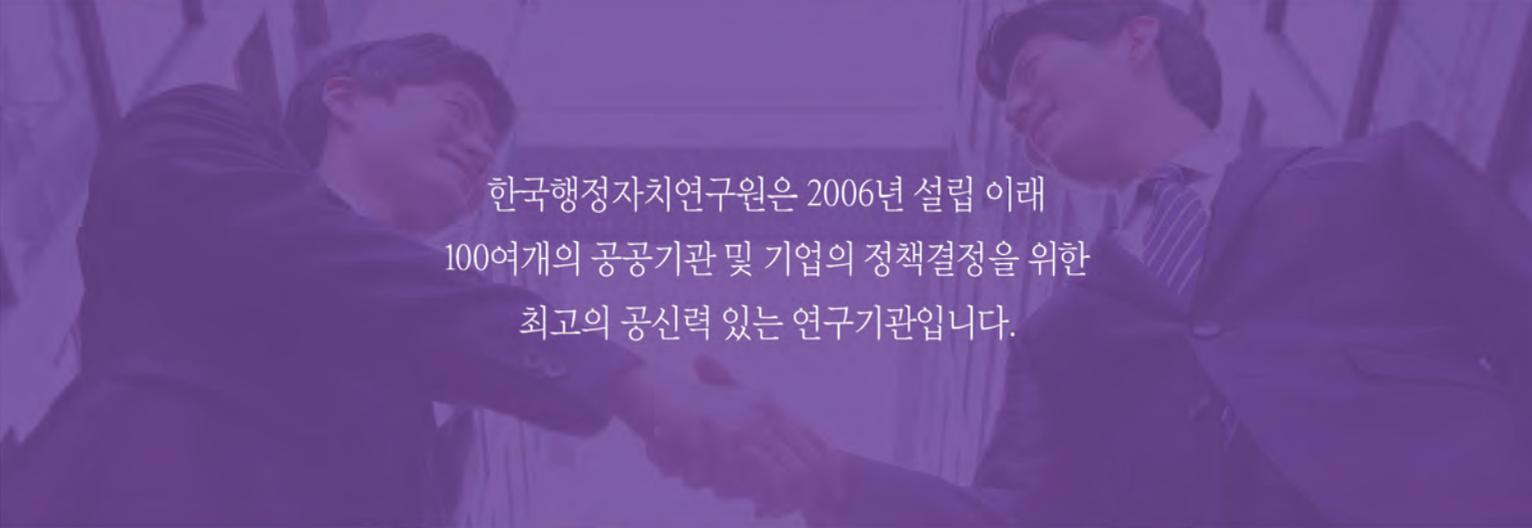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 및 학술연구기관입니다.

www.kpar.kr



주요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산동 1038-3, 3F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월간 소식지 재발간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획재정부 소관 종합 학술연구기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하 한기연)이 이달부터 월간 소식지를 재발간한다. 재발간 되는 월간 소식지에는 최신 정책 관련 지침 및 법령 정보, 계약 심사제도, 학술연구용역 계약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더불어 매달 개정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입법 예고된 법률들을 요약, 정리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기연은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학술, 원가계산 및 검토, 경영 컨설팅 분야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하고자 월간 소식지를 재발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 감동과 연구 정진 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연은 고객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경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경주시는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 수 전국 상위권의 불명예를 씻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14일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경주역을 포함해 시내권 3개소, 읍면동 23개소 등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정흥남 경주서장, 장재필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 교통안전관리처장을 비롯한 교통봉사단체·시민·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동시장 주변 상인과 노인층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며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30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강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시설물을 보완해 사고재발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기초질서 준수 시민홍보·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는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노인 사망사고가 많은 만큼 경로당을 방문해 무단횡단 금지, 야광조끼 배부 등 획기적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드림스타트,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성주군드림스타트는 벽진면 문화센터, 월항면 안포5리 마을회관에서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권역별사업은 지역여건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 미술공예, 우쿨렐레 음악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의 재능과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발달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벽진면 미술공예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아동 7명이 벽진면 문화센터에 모여 클레이 가면·석고방향제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고 있으며, 월항면 우쿨렐레 음악교실은 사례관리 아동 6명이 안포5리 마을회관에서 우쿨렐레 악기를 배우는데 힘쓰고 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선뜻 장소를 제공해주신 벽진면 문화센터 관계자와 안포5리 주민을 비롯한 아동들의 안전귀가를 책임지고 있는 벽진면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권역별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릉군,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울릉군은 직장 내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최수일 군수 주관으로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총무담당이 참여해 직원들의 고충과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군 산하 9급 새내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 고충상담 및 결혼에 관한 노하우 전수 등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적극 수렴해 각종 군정시책에 반영키로 했으며, 매년 '군수님과 직원 대화'를 실시해

직원과의 소통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군수와 자리를 같이하는 시간이었고, 평소에 군정에 대해 궁금했던 점, 건의할 사안들을 편안히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공직생활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구미보건소 'Yes 구미 합창단' 초청공연



구미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Yes 구미 합창단'이 지난달 11일 금오산 올레길에서 개최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초청받아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 발표한 곡은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와 '상록수' 2곡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 및 봉사자가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합창으로 관람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정신 장애인으로 구성된 'Yes 구미 합창단'은 지난 2월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남녀 40여 명으로 창단해 매주 목요일마다 '구미 발갱이 들소리 전수관'에서 노래

실력을 갈고 닦아왔다. 이번 공연은 김현수(시립합창단원) 지휘자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정신질환자의 자존감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로의 통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김희숙 센터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럿이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처럼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농기센터, 6차 산업 마을해설사 교육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14일 6차 산업 마을해설사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마을해설사 교육생 85명은 호미곶 태양동물농장(호미곶면 대보리), 건강장수마을 체험장(신광면 죽성리), 봉좌마을(기계면 문성리), 산도래과수 영농조합법인(기북면 울산리) 현장을 둘러보며 마을해설을 실습했다.

6차산업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은 오는 11월 22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되며, 포항시는 포항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램을 운영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전문적인 6차산업 마을해설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생들은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마친 후 2017년부터 가칭 '포항 6차산업 마을해설사' 단체에 소속되며, 지역내에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콘텐츠 운영, 체험 프로그램 설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게 된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포항의 청정 자연환경과 체험프로그램에 친근하고 전문적인 해설까지 곁들여 진다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경인재개발원’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양성해 조국과
민족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 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학점인증제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교육훈련
- 편(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8길22. 3층
(지산동 1038-3)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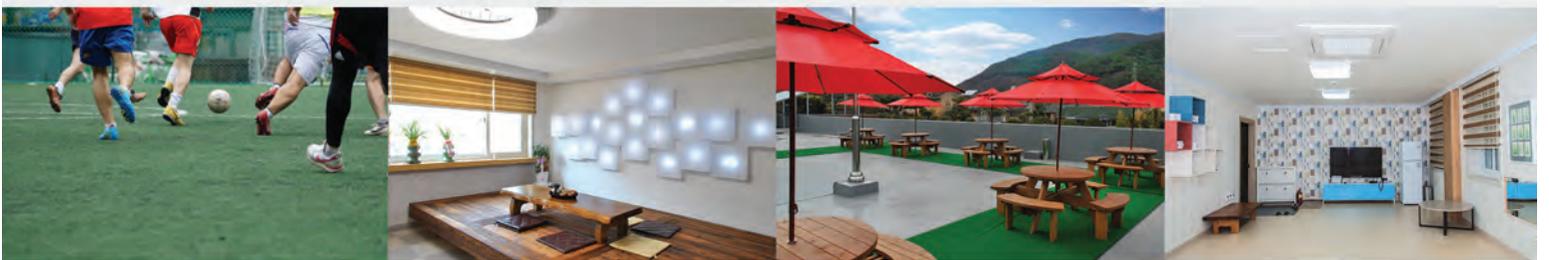
大慶研修院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속 쉼터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인재개발원 부설, **대경연수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터!



대경연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大慶研修院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86
Home Page: www.dghrd.co.kr